

목포시 고향사랑기부 2000건 돌파

올 1월 1일 8명 기부로 시작
가수 남진 1호 고액기부자
전남 41%·서울 16% 順 많아
박홍률 시장 감사 홍보 행사



박홍률(앞줄 가운데) 목포시장과 목포시 공무원들이 고향사랑기부 2000건 돌파를 기념해 감사하는 마음을 팻말로 전하고 있다. <목포시 제공>

목포시 고향사랑기부가 이달 들어 2000건을 돌파하면서 지역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목포시는 올해 1월1일 시작한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한 시민이 이달 13일 기준 2000명을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 주소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세액 공제(10만원까지 전액 공제)와 기부금 30% 상당의 답례품을 제공한다.

목포에서는 지난 1월1일 8명이 기부를 하며 고향사랑기부 시작을 알렸다.

같은 달 16일 전남도 고향사랑 홍보대사이기도 한 가수 남진은 500만원의 기부하며 '목포시 1호 최대 금액 기부자'에 이름을 올렸다.

남진은 목포 창평동에서 태어나 확장시절을 보내고 지난 1965년 가수로 활동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목포 '남진 생가'와 '남진 야시장'(자유시장)에는 시민,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6월에는 국악인 박애리가 배우자 팝핀현준과 목포를 찾아 500만원을 기탁했다.

박애리는 전남도 고향사랑기부제 응원 행렬에 9번째로 동참하기도 했다.

애환심이 깊은 박애리는 최근 목포문화도시센터와 '두근두근 목포'라는 유튜브 영상을 선보이

며 문화도시 목포를 알렸다.

이들 외에도 확장시절을 목포에서 보낸 박우량 신안군수와 이권재 오산시장, 요리 연구가 이해정 씨 등 출향 인사와 시민들이 기부에 동참했다.

기부자들의 거주지를 살펴보면 전남이 814건으로 41%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318건(16%) ▲경기 314건(15%) ▲광주 163건(9%) ▲기타 지역 391건(19%) 등 순이었다.

기부자 나이는 40대가 630건(32%)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610건(31%) ▲30대 427건(21%) ▲60대 이상 168건(8%) ▲20대 이하 165건(8%) 등 순으로 나타났다.

기부 금액별로는 전액 세액 공제가 되는 10만원 이하 기부가 1893건으로 95% 비중을 차지했다.

목포시는 세액 공제 혜택이 필요한 30~50대 직장인들의 기부가 주를 이뤘다고 풀이했다.

기부 신청은 대면·비대면 방식 가운데 간편한 온라인 신청이 1769건(88%)으로 많았다.

목포시는 최근 소셜미디어(SNS)에서 목포 고향사랑기부 인증 행사를 펼쳐왔다.

앞서 2000번째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한 기부자는 서울에 사는 40대 직장인이었다.

그는 "지난주 목포 관광을 가면서 목포 기부를 결정하게 됐다"며 기부 답례품으로는남도 대표 먹거리인 흥어를 선택했다.

박홍률 목포시장과 목포시 간부 공무원은 지난 16일 기부자 2000여 명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행사를 벌였다.

박 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어느덧 첫 생일을 맞이한다"며 "지금은 작은 씨앗이지만 큰 거목이 되어 든든하게 목포를 지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해남군 택시 기본요금 37% 인상 4800원

거리 운임 130m당 160원으로

심야할증과 사업구역 외 할증 요금은 20%로 현행과 같다.

해남군 택시 기본요금(2km)이 오는 24일부터 4800원으로 오른다.

해남군은 이날 0시부터 2km 기준 택시 기본요금이 3500원에서 4800원으로, 37.1%(1300원)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남지역 택시요금이 오른 건 2019년 6월 이후 4년 만이다.

24일부터 중형택시 2km 기준 기본요금은 4800원으로 조정된다.

이후 거리 운임은 130m당 160원으로, 시간 요금(시간당 15km 이하)은 30초당 160원으로 조정된다.

기존에 있던 호출료 1000원은 없어졌다.

이번 요금 인상은 지난 8월 전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의결된 택시 운임 인상안을 토대로 결정됐다.

해남군은 택시업계 간담회를 연 뒤 주민 의견 수렴, 의회 간담회, 해남군 물가안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상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유류비와 인건비 등 운송원가 상승으로 인한 택시업계의 경영난과 인근 시군 택시요금 동향, 물가상승률 등 모든 여건을 여러모로 검토한 끝에 인상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여수·흑산도 해상국립공원 관리선 2척 취항

원거리 도서지역을 순찰하고 공원자원 조사 등 현장관리 임무를 수행할 관리선 2척이 새로 취항했다.

범·무질서행위 순찰 및 단속과 공원자원 조사, 해양오염 예방 및 방제 등 다양한 현장 관리 업무 수행할 예정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16일 목포시 남항 관공선 부두에서 신규 관리선(국립공원305호, 국립공원306호) 진수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목포시와 신안군 등 유관기관의 기관장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경과보고 등 기념행사 및 선박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진수한 신규 관리선은 총톤수 15t으로 선체길이 19.9m, 폭 3.7m, 최대속력 32노트, 최대 승선 인원은 12명이다. 여수와 흑산도 등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현장에 배치되며 도서지역 불

국립공원공단의 관리선은 연구선 포함 총 12척(국립관리선 11척, 연구선 1척)으로 해상-해안국립공원 도서의 1시간 이내 순찰·단속 가능 비율이 전년도 46.1%에서 올해 79.2%로 확대돼 도서지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이번 신규 관리선 건조를 계기로 원거리 도서지역에서의 순찰, 공원자원 조사 등 현장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진도 농수산물식품 미국 진출 포문...500만 달러 수출 협약

농수산물 수출개척단 LA 방문



김희수(왼쪽 두번째) 진도군수가 LA 한남체인 매장을 찾아 할인행사 중인 농수산물을 살펴보고 있다.

진도군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500만 달러 수출 협약을 맺는 등 농수산물식품 미국 진출의 포문을 열었다.

진도군은 지난 17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한남체인, 키트레이딩과 진도 농수산물 500만 달러 규모의 수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희수 진도군수와 박남규 농수산물유통사업단장으로 구성된 진도군 농수산물 수출개척단의 미국 방문에 맞춰 진행된 이번 협약을 통해 진도산 쌀, 미역, 김, 꽃게, 울금 가공식품 등이 미국에 첫 선을 보이게 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의 우수농수산물식품이 미국에 수출하는 첫 포문을 열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진도군은 밝혔다.

진도군은 이번 협약과 함께 LA 한남체인, 샌프란시스코 메가마트 등 3개 매장에서 진도군 농수

산물의 홍보와 판촉을 위한 할인행사를 오는 24일 까지 진행한다.

진도군은 앞서 지난 7월 호주에 100만 달러 농수산물 수출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이번 판촉행사와 협약을 계

기로 진도 농수산물의 해외시장 개척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세계적인 한국음식(K-food) 유행에 발맞춰 진도군 농수산물이 한국을 뛰어넘어 전 세계의 사랑을 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도=이중수 기자 js7777@kwangju.co.kr

영암군 12월15일까지 농어촌진흥기금 신청

영암군이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4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을 오는 12월15일까지 접수받는다.

영암군은 농어촌진흥기금이 농어업 경쟁력 강화의 중요한 교두보를 마련하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내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70세 이하 농어업인 및 농수산물 사업자 대표가 기금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농·어업인은 1억원 이내, 법인은 2억원 이내, 가

공·유통·수출 사업자는 최대 10억원까지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나눠서 신청하면 된다. 융자금 상환 조건은 시설자금의 경우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영암군은 2022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으로 34명에게 총 15억600만원을 지원했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건설)팀에 방문해서 할 수 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